



↓ 코스피 2230.98 (-7.90)	↑ 코스닥 679.16 (+0.45)
↑ 금리 (미국 3년) 1.39 (+0.01)	↑ 환율 (원/달러) 1157.00 (+0.90) (15일)



[금융]
BNK금융그룹
飛上 2020 전략
05

지구촌은 지금 '프라이버시 보호' 총력

시시대 역기능 막아라 첨단 정보보호 잇따라

GAFGA, 프라이버시 보호 강조
AI 제품에 정보 보호기능 강화

구글, 어시스턴트 기록삭제 명령
아마존, 음성 지시로 녹음 삭제
페이스북, '공개범위 확인' 추가

인공지능(AI) 개발을 주도하는 글로벌 IT 공룡기업인 GAFG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가 'CES 2020'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하고, AI 제품에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속속 탑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재점화됐으며,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 하부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GAFGA 프라이버시 보호 어디까지

지난 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0'에서 GAFGA의 가장 큰 이슈는 프라이버시 강화였다. 이 이슈가 애플을 28년 만에 CES에 참석하도록 이끌었다. 애플, 페이스북 등의 최고 프라이버시 책임자들은 원탁회의에서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또 GAFGA는 최근 강화된 프라이버시 기능도 선보이고 있다.

구글은 AI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에 '프라이버시 디자인'을 채택했다. 사용자가 "헤이 구글, 이번 주에 말한 모든 내용을 삭제해 줘"라고 명령하면 모든 기록이 삭제된다.

아마존도 음성 지시로 녹음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아마존의 보안회사인 링이 홈보안 카메라로 녹화된 동영상 데이터를 경찰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문제가 되면서, 이번에 데이터가 경찰에 제공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페이스북은 이 달 '내가 공유한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 기능을 추가해 자신의 프로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을 볼 수 있는 '공개 범위 확인' 기능을 도입했다. 내 정보 사용 내역을 볼 수 있으며, 친구 요청이 가능한 이용자도 설정할 수 있다.

애플은 이모지(이모티콘) 데이터 세트를 익명화해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이모지가 나타나도 데이터를 알 수 없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기능을 선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연례개발자회의에서는 로그인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애플로 로그인하기' 기능을 소개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로그인할 때 이름, 성별 등 데이터가 제공되는 것과 비교해 차이를 강조했다.

글로벌 IT 기업들에 프라이버시가 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은 2018년과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 구글플러스의 5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및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의혹, 지난해 애플 계약업체 직원들이 아이폰 사용자와 AI 음성비서 '시리'의 대화를 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달에도 아마존 직원들이 고객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유출했다가 해고됐다.

◆데이터 3법 통과...정부도 빠른 후속 조치 내놔야

국내에서도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명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연구·사업에 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여러 가명정보가 결합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가명정보를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로 정의했지만, 이 정의가 매우 추상적이다.

지난해 8월 네이버 커뮤니케이션이 발표한 논문에는 비식별화된 데이터로도 특정 개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몽주이 교수 등이 미국, 터키 등에서 공개된 데이터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명정보에서 특정 개인을 찾아내는 재식별화 모델을 만들었다. **<3면에 계속>**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에린 이건 페이스북 CFO(왼쪽 2번째), 제인 호바스 애플 선임이사(가운데) 등 최고 프라이버시 책임자들이 CES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CNET



이용우 제네시스 사업부 부사장이 15일 오전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네시스의 첫 SUV 'GV80'을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최첨단 기술 집합... 제네시스 첫 SUV 출격

현대차 'GV80' 공식 출시 3.0 디젤, 6580만원 부터

제네시스 브랜드가 첫 번째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GV80'을 공식 출시했다.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15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럭셔리 플래그십 SUV 'GV80'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GV80은 제네시스가 처음 선보이는 후륜구동 기반의 대형 SUV 모델이다.

제네시스는 지난 4년여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해온 경험과 럭셔리 감성, 최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바탕으로 기존 프리미엄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대형 럭셔리 SUV를 목표로 GV80을 개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원희 사장은 "제네시스는 오늘 출시하는 GV80에 기존 SUV와 차별화된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

을 바탕으로 새로운 안전 및 편의 사양들을 담아 고객 여러분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도록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오직 고객의 니즈에만 집중해 제네시스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디자인, 품질, 서비스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GV80은 후륜구동 기반의 대형 SUV에 걸맞은 최고의 동력 성능과 주행 성능을 갖췄다.

GV80은 직렬 6기통 3.0디젤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278마력(PS), 최대토크 60.0kgf·m 등 동급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동력 성능을 갖췄으며 복합 연비는 11.8km/L이다. 또한 11가지 다양한 외장 컬러와 5가지의 내장 컬러 패키지로 운영된다.

특히 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정보를 통해 전방 노면 정보를 사전에 인지, 적합한 서스펜션 제어로 탑승객에게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최초 적용됐다.

GV80의 디자인은 역동적인 우아함을 완벽하게 담아낸 외관과 대형 SUV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인 편안하고 깔끔한 내부, 다양하고 매혹적인 컬러 등으로 고급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능동형 노면소음 저감 기술, 인체 공학적 시트 시스템인 에르고 모션 시트 등으로 안락한 실내 공간과 고속도로 주행보조 II(HDA II), 10 에어백 등 뛰어난 주행 편의 및 안전 사양,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필기인식 조작계) 등의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편의 사양으로 혁신적인 상품성을 갖췄다.

제네시스는 GV80을 3.0 디젤 모델부터 출시하고, 추후 가솔린 2.5/3.5터보 모델을 더해 총 3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3.0 디젤 모델의 판매가격은 6580만원부터 시작된다. /양성운 기자 ysw@

바이오의약 넘어 식품·에너지까지 육성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

홍남기 혁신성장전략회의 바이오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 5대 추진전략 10대 핵심과제 선정

정부가 고성장이 예고됐는데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바이오산업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기존 레드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그린·화이트바이오 분야 산업도 육성한다.

바이오산업은 응용 분야에 따라 레드·그린·화이트 바이오로 분류되는데 레드바이오는 바이오의약과 헬스케어, 그린바이오는 맞춤형 혁신식품, 생명자원, 식물공장 등을, 화이트바이오는 바이오연료, 바이오리파이너리, 바이오플라스틱 등을 각각 말한다.

정부는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이런 내용의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TF를 통해 지난 2개월여간 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전략을 집중 논의한 결과, 혁신 범위를 레드(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그린(식품·자원)·화이트(환경·에너지) 바이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바이오 정책이 보건·의료 등 레드바이오 분야에 집중돼 있어 그린·화

이트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산업육성 전략 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은 레드 39.7%, 그린 15.9%, 화이트 4.2%, 기초기반 40.2% 등이다.

정부는 바이오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R&D 혁신, 인재양성, 규제·제도 선진화, 생태계 조성, 사업화 지원 등 5대 추진전략에 따라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바이오 연구자원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식량이나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린·화이트 바이오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실증연구 확대를 검토한다.

한국형 NIBRT를 설립해 생산·품질 관리 등 바이오산업 현장형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NIBRT는 아일랜드의 바이오의약품 연구 및 인력양성기관(NIBRT)으로 의약품 생산, 품질관리 등 공정 전 과정의 생산·개발 인력 교육기관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